

따뜻한 색으로 바꾼 일상 공간

박대항 기자 | 승인 2026.05.03 12:47

자원봉사센터, 벽화 그리기 봉사 진행



(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강희)가 지난 1일 청양읍에 소재한 장애인 가구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지도교수 이승일) 학생들과 함께 '행복 마을, 우리 동네 벽화 이야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 제공

[청양] (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강희)가 지난 1일 청양읍에 소재한 장애인 가구에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지도교수 이승일) 학생들과 함께 '행복 마을, 우리 동네 벽화 이야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가구의 외벽을 정비하고 정서적 안정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 20

명이 재능기부로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봉사자들은 사전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상하고 밝고 따뜻한 색감의 벽화를 직접 그려 넣으며 낡고 어두웠던 외벽을 생기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생활공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대상 가구에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활동에는 2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으며 전공 기반의 실무 경험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강희 센터장은 "벽화 봉사활동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 대상자의 일상에 작은 희망과 변화를 더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 이승일 교수는 "학생들이 배운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지역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pdh4112@daejonilbo.com